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구지윤, 《실버》

KOO Jiyeon, *Silver*

구지윤, 《실버》(아라리오갤러리 서울, 2025) 전시전경.

전시작가 : 구지윤(b. 1982)
전시제목 : 《실버》 *Silver*
전시일정 : 2025년 4월 23일(수) – 6월 7일(토)
전시장소 :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종로구 율곡로 85) 1F, B1F
전시작품 : 회화 21점

[문의] 박미란 팀장 E. miran.park@arariogallery.com

자료목차	1. 전시개요	-----	2
	2. 전시주제	-----	2-3
	3. 작가의 글	-----	3-4
	4. 작품소개	-----	4
	5. 전시전경	-----	5
	6. 작가소개	-----	6
	7. 작가약력	-----	6-7

1. 전시개요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은 2025년 4월 23일(수)부터 6월 7일(토)까지 **구지윤**(b. 1982) 개인전 《**실버**》를 연다. 구지윤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서울의 도시 풍경으로부터 추출한 인상과 정서를 추상회화의 언어로 변환하는 작업을 지속해왔다. 그는 끝없이 솟아나고 무너지기를 반복하는 건물과 도로, 갖가지 인공 구조물이 밀집한 도시의 속성에 생물학적 유기체의 모습을 투영하여 본다.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유기적 존재들처럼 언젠가 기억 속에만 남게 될 도시의 운명을 연민하는 것이다. 이번 전시는 구지윤이 아라리오갤러리에서 4년 만에 개최하는 개인전으로, 그가 최근까지 제작한 근작 및 신작 회화 21점을 선보인다. '실버'라는 열쇠말 아래 도시의 시간성을 회화의 언어로 풀어낸 다채로운 결과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

2. 전시주제

'실버' - 빛과 시간의 투영체

구지윤이 바라보는 서울은 회색과 은빛 구조의 풍경이자, 켜켜이 중첩된 시간의 지층을 품은 회화적 대상이다. 은빛은 색(色)의 세 가지 속성인 명도, 채도, 색상 가운데 명도의 차이만을 지니는 무채색의 본질에 기반하지만 주위의 빛을 찬란하게 반사하는 성질을 지녀 무광의 회색과 전혀 다른 종류의 정서적 움직임을 불러일으키는 빛깔이다. 회색이 도심 속 오래되어 사라지는 것들 위에 덧씌워진 고층 건물의 표면을 떠올리도록 한다면, 반짝이는 은빛은 한강 위 물비늘이 품은 무언의 생명력을 연상시킨다. 도시의 은빛은 구지윤에게 있어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지워진 것과 남겨진 것 사이를 떠도는 빛"이다.

전시명인 《실버》는 주제로서의 도시와 매체로서의 회화 양측에 내재한 '빛'과 '시간'을 동시에 상징한다. '실버'는 대상의 표면에 맞닿은 빛을 반사하여 보는 자에게 되돌려주는 매개체이자 투영체이다. 그것은 은빛 자체를 지시하는 단어라기보다, 모든 색에 '빛'과 '시간'의 속성이 내재하여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는 상징이다. 회화의 화면 위에 중첩된 다양한 색들은 제각기 다른 파장을 지닌 빛의 편린이다. 서로 다른 물리적 성질에 의하여 반사된 빛은 우리의 시각 체계에 의하여 때로 찬란한 유채색으로, 또는 고요한 무채색으로 포착된다. 대상을 경유하여 색으로 되돌아온 빛은 보는 자의 감정과 정서에 관여하는 심미적 요소로서 거듭난다.

시간이 스민 장(場)으로서의 회화

빛깔로서의 '실버'를 포함하여, 모든 색을 시지각적으로 인식하기 위하여서는 반사체로서의 대상이 머금은 빛을 다시금 풍경에 되돌려주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시간은 구지윤의 작품세계를 구축하는 또 하나의 중심 개념이다. 그는 물감의 층위를 쌓아 올리는 붓의 움직임에 도시의 시간성을 투영한다. 색이 쌓이고 묻히기를 거듭하는 회화의 과정 속에서, 화면은 "시간이 스며든 장(場)"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한다. 《실버》라는 전시명과 <빈티지>(2025), <파티나>(2025), <빛바랜 실버>(2025), <화석>(2025) 등의 작품명은 저마다 '시간의 축적'과 '나이 듦'의 감각을 환기한다. 수많은 것들이 바빠 지어지고 금세 사라지는 오늘날 도시의 생태 가운데, 어떠한 대상과 존재들은 오래도록 같은 자리에

머물며 나이 들어 간다. 기억과 역사를 켜켜이 품은 사물과 장소, 사람들은 그 '시간'을 반사하여 세상에 되돌려줌으로써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존재로 거듭나기도 한다. 오래되고 낡은 것을 연상시키는 낱말들은 구지윤의 화면 위에서 '소멸'이 아닌 '축적'을 지시한다. 전시의 출품작들은 회화의 언어로 묘사된 대상들이 각자 어떠한 시간을 반사하고 투영하는지, 그럼으로써 어떻게 인지되는지에 관한 탐구의 결과물이다. 구지윤에게 회화란 '감각의 기록'이자 '시간의 보존 수단'이며 "사라진 것들이 화석이 되어 미래로, 현재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현재의 것을 기록하고 견고하게 물질화하여 내일 혹은 더 먼 미래로 보내 그것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행위이다.

3. 작가의 글

실버 - 반사된 시간의 흔적

구지윤

나는 작업실로 향하는 길에 다세대 주택으로 둘러싸인, 다소 당황스런 장소에 자리 잡은 백제시대 고분을 지나며, 이 도시가 얼마나 많은 층위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새삼스레 생각한다. 언뜻 보기에 익숙한 주변의 도심 풍경이지만, 이곳에는 수천 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다. 내비게이션의 지시에 따라 달리는 아스팔트 도로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서울이 존재한다. 오랜 시간을 견디며 남겨진 것은 거의 없지만, 신축 공사 중 우연히 드러나는 과거의 흔적들을 마주할 때, 수천 년의 시간과 사라진 것들이 얼마나 얇고 취약한 층을 이루며 우리와 공존하고 있는지 실감하게 된다.

누군가 서울의 색을 물어보면, 나는 '그레이'와 '실버' 사이에서 고민한다. 회색은 모든 것을 흡수하고 평평하게 만드는 특유의 불투명성으로 사라진 것이 있던 자리 위로 새로운 것을 덧씌우는 색이다. 작업실 창문으로 보이는 롯데타워,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 무인 상점 속 키오스크. 새롭고 낯선 것으로 오래되고 익숙한 것의 흔적을 지우는 거대하지만 공허한 색이다. 반면, 실버는 반사한다. 과거의 빛을 받아 되돌려 보내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시간의 흔적을 순간적으로 되살려 놓는다. 그것은 한강의 부서지는 물비늘에서, 공사장에서 발견된 토기의 파편에서, 혹은 재개발 이후 버려진 길고양이 곁에서 반짝인다. 실버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지워진 것과 남겨진 것 사이를 떠도는 빛이다. 실버는 축적된 기억의 반사이며, 순간적으로 나타나 존재하는 과거이며, 사라지지 않는 시간의 잔영이다.

나는 그림을 그리며 붓 자국의 중첩이 도시의 시간성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다. 색이 쌓이고, 지워지고, 다시 겹쳐지는 과정에서 그 표면은 더 이상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시간이 스며든 장(場)으로 변한다. 작업 과정에서 처음에는 무질서하게 보였던 붓 자국들이 이제껏 쌓인 이미지와 함께 서서히 의미 있는 구조를 형성하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결코 우연한 배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곤 한다.

나는 지금, 여기를 그리려 한다. 회화로 그것을 남기는 일은 단순한 풍경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여기로 되돌아오는 시간의 흔적을 붙잡는 일이다. 마치 지금은 사라진 것들이 화석이 되어 미래로, 현재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현재의 것을 기록하고 견고하게 물질화하여 내일 혹은 더 먼 미래로 보내 그것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림을 그린다.

우리가 잊었다고 생각했던 것들, 사라졌다고 믿던 것들이 빛에 반사된 먼지처럼 여전히 어딘가에 머물고 있다. 나는 '그레이'로 둘러싸인 여기에서 '실버'를 찾는다. 반사되는 빛 속에서 우리는 한때 존재했던 가치들을 마주하게 된다. '실버'의 순간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4. 작품소개

※고화질 이미지는 웹하드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작품 이미지 사용시 다음의 저작권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KOO Jiyeon.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Photo: YANG Ian]

대표이미지



구지윤
〈빈티지〉
Vintage
2025
캔버스에 유채
290.9 x 218.2 cm



구지윤
〈균열을 따라 읽기〉
Read Along the Crack
2024
캔버스에 유채
227.3 x 181.8 cm



구지윤
〈파티나〉
Patina
2025
캔버스에 유채
162.2 x 130.3 cm



구지윤
〈빛바랜 실버〉
Faded Silver
2025
나무에 유채
30 x 21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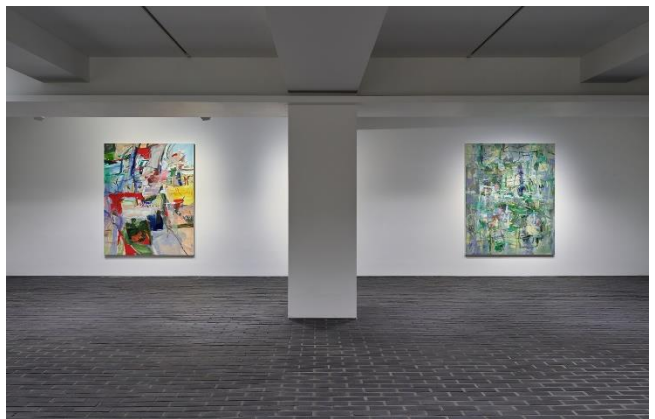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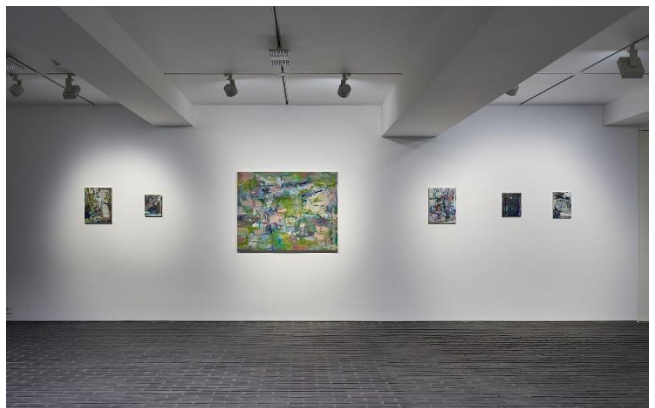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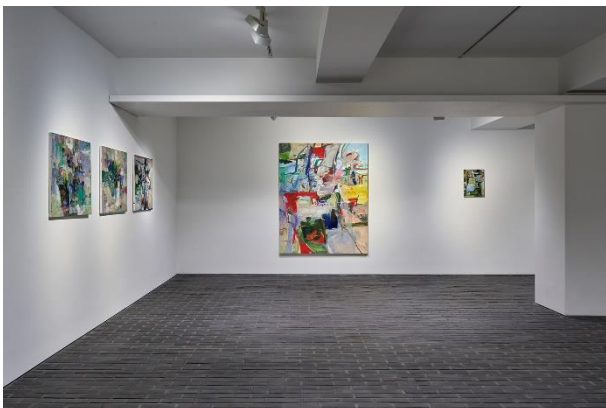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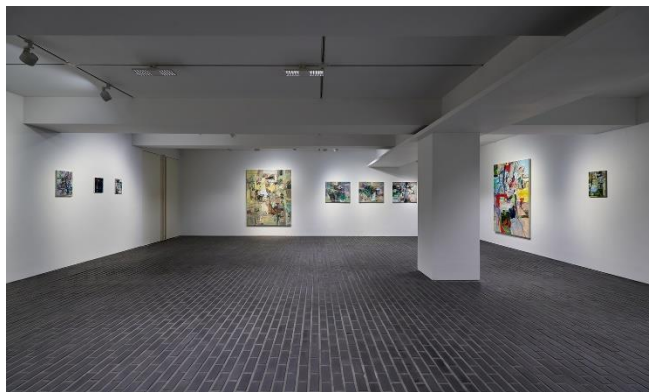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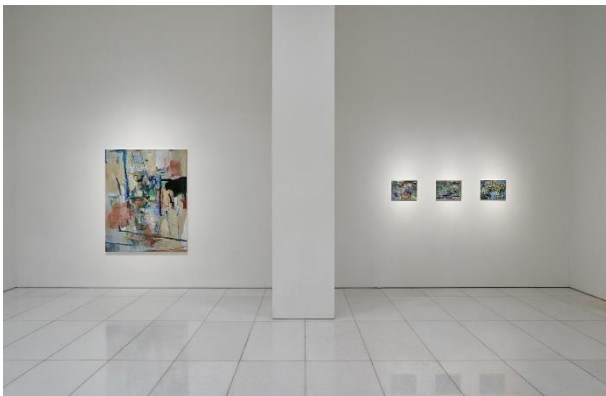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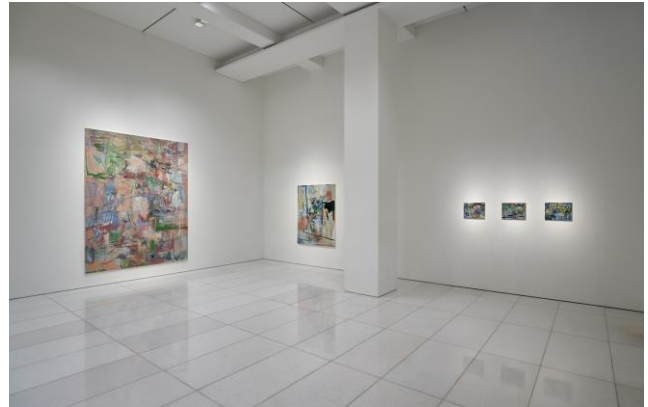
구지윤
〈거미줄〉
Spiderweb
2024
리넨에 유채
40.9 x 31.8 cm



구지윤
〈화석〉
Fossil
2024
리넨에 유채
40.9 x 31.8 cm

5. 전시전경

※고화질 이미지는 웹하드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구지윤, 《실버》(아라리오갤러리 서울, 2025) 전시전경.

6. 작가소개



구지윤은 1982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2006년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를 졸업한 후 2007년 미국 시카고예술대학 순수미술과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2010년 미국 뉴욕대학교 스튜디오아트에서 석사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울에서 거주 및 작업한다.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서울, 한국, 2025; 2021), 갤러리퍼플(남양주, 한국, 2022),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서울, 한국, 2018),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서울, 한국, 2016)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파주, 한국, 2024), 뉴스프링프로젝트(서울, 한국, 2024),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서울, 한국, 2024; 2021), 아라리오갤러리 천안(천안, 한국, 2021; 2020), 두산갤러리 서울(서울, 한국, 2019; 2014), 소다미술관(화성, 한국, 2019), 하이트컬렉션(서울, 한국, 2018), 자하미술관(서울, 한국, 2018; 2015), 두산갤러리 뉴욕(뉴욕, 미국, 2010) 등의 기관이 연 단체전에 참여했다. 아라리오뮤지엄, 한국은행 등의 기관이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7. 작가약력

구지윤

1982 년 대구 출생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

학력

2006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예술사

2007 미국 시카고예술대학 순수미술과 학사

2010 미국 뉴욕대학교 스튜디오아트 석사

개인전

2025 실버,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서울, 한국

2022 레이어들, 갤러리퍼플, 남양주, 한국

2021 혀와 손톱,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서울, 한국

2019 블루 바이널 커튼, 63 아트, 서울, 한국

2018 보라색 소음,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 서울, 한국

2016 무거운 농담,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서울, 한국

2011 그림 뒤의 환영, 갤러리 175, 서울, 한국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건, A.I.R. 갤러리, 뉴욕, 미국

주요 단체전

- 2024 콘크리트 앱스트랙션,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파주, 한국
Abstract Gestures from Female Painters, 뉴스프링프로젝트, 서울, 한국
착륙지점,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서울, 한국
- 2023 어색한 낭만주의, 누크갤러리, 서울, 한국
- 2022 언덕 위의 바보, 원앤제이갤러리, 서울, 한국
G.P.S. 5 기 아트 내비게이터, 갤러리퍼플, 남양주, 한국
- 2021 13 번째 망설임,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서울, 한국
- 2020 댄싱퀸,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천안, 한국
- 2019 아마도 멋진 곳이겠지요, 두산갤러리 서울, 서울, 한국
떨어내기, 소다미술관, 화성, 한국
- 2018 올오버, 하이트컬렉션, 서울, 한국
지나감-후에, 자하미술관, 서울, 한국
로비 머디 카펫, 2/W, 서울, 한국
구지윤, 이은우 2 인전: 일루전, 에이엠씨랩, 서울, 한국
- 2017 The Exquisite Bond of the Hydrogen Corpse, 원앤제이 플러스원, 서울, 한국
예술만큼 추한,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한국
- 2015 얼굴-풍경, 자하미술관, 서울, 한국
얼굴-풍경: 에트로 미술대상 수상 작가전, 백운갤러리, 서울, 한국
- 2014 무제, 갤러리현대 윈도우 갤러리, 서울, 한국
구경꾼들, 두산갤러리 서울, 서울, 한국
뉴히어로(주최 퍼블릭아트), 복합문화공간 네모, 서울, 한국
오늘의 살롱, 커먼센터, 서울, 한국
- 2013 한국은행이 선정한 우리 시대의 젊은 작가들, 한은갤러리, 서울, 한국
- 2010 1/4 인치와 3/4 인치(기획 피터 클러프), 성 세실리아 성당, 뉴욕, 미국
자연의 힘, 뉴욕원예협회, 뉴욕, 미국
미묘한 불안, 두산갤러리 뉴욕, 뉴욕, 미국
졸업작품전, 뉴욕대학교 80 워싱턴 스퀘어 이스트 갤러리, 뉴욕, 미국
- 2009 포 리얼, 뉴욕대학교 커먼갤러리, 뉴욕, 미국
그라시아스!, 뉴욕대학교 커먼갤러리, 뉴욕, 미국

수상

- 2014 제 3 회 에트로 미술대상 금상, 한국
- 2010 산토파운데이션 인디비주얼 아티스트 어워드, 산토파운데이션, 미국
A.I.R. 갤러리 펠로우쉽, 뉴욕, 미국

소장

- 에트로, 한국
한국은행, 한국
아라리오뮤지엄, 한국

ARARIO GALLERY SEOUL

KOO Jiyeon, *Silver*

Installation view of *KOO Jiyeon: Silver* at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2025.

Artist	: KOO Jiyeon (b. 1982, Korea)
Title	: <i>Silver</i>
Dates	: 23 Apr – 7 Jun 2025
Venue	: ARARIO GALLERY SEOUL (85 Yulgok-ro, Jongno-gu, Seoul, Korea) 1F, B1F
Artworks	: 21 paintings in total

Miran PARK, Deputy Director | E. miran.park@arariogallery.com

<u>Table of Content</u>	1. Exhibition Overview	-----	2
	2. Exhibition Theme	-----	2-3
	3. Artist's Note	-----	3
	4. Artwork	-----	4
	5. Installation View	-----	5
	6. Artist Introduction	-----	6
	7. Artist CV	-----	6-7

1. Exhibition Overview

ARARIO GALLERY SEOUL is pleased to present *Silver*, a solo exhibition by **KOO Jiyeon** (b. 1982, Korea), on view from April 23 (Wed) to June 7 (Sat), 2025. KOO has consistently translated impressions and emotions drawn from the everyday urban landscape of cities—including Seoul—into the language of abstract painting. In her work, the ever-rising and collapsing buildings, roads, and densely packed artificial structures are envisioned as biological organisms—living entities that undergo cycles of birth and decay. Through this lens, she expresses a sense of empathy for the city, destined to remain only in memory, like all organic beings that inevitably fade away. This exhibition features 21 recent and new paintings by the artist. Centered around the thematic key of *Silver*, the show explores the temporality of the city through a rich spectrum of painterly expression.

2. Exhibition Theme

Silver – A Projection of Light and Time

KOO Jiyeon sees Seoul as a landscape rendered in shades of grey and silver—a painterly subject layered with strata of time. Silver, while technically achromatic—differing only in brightness among the three attributes of color: hue, saturation, and brightness—possesses a brilliant ability to reflect surrounding light, evoking a distinctly different emotional resonance from that of matte grey. Whereas grey conjures the weathered surfaces of high-rise buildings that enshroud what has long vanished from the city, shimmering silver recalls the unspoken vitality of ripples on the Han River in Seoul. For the artist, the silver of the city is “a light that drifts between the old and the new, between what has been erased and what remains.”

Accordingly, the exhibition title *Silver* simultaneously symbolizes “light” and “time”—two core elements that underpin KOO Jiyeon’s continued exploration of the city and the medium of painting. It is less a word that denotes silver itself, and more a symbol that evokes the fact that light and time are inherent in all colors. On the artist’s canvas, accumulated layers of color are fragments of light, each with its own wavelength. As these layers are reflected through different material qualities, they appear to the eye as vivid hues or muted tones. Light, transformed into color through its encounter with a subject, emerges as an aesthetic agent that resonates with emotion and memory.

Painting as a Site Where Time Has Seeped In

To perceive a color like silver—indeed, to perceive any color—requires time: time for the light absorbed by a surface to return to the world as reflection. Time, then, becomes a central axis in KOO Jiyeon’s work. With every brushstroke and each layer of pigment, she inscribes time into her canvases. Through gestures of layering, covering, and revealing, the surface becomes a “site where time has seeped in”—a visual field imbued with duration and presence. The exhibition title *Silver*, along with the titles of works such as *Vintage* (2025), *Patina* (2025), *Faded Silver* (2025), and *Fossil* (2025), evokes a sense of aging and temporal accumulation. In the rapid cycle of construction and disappearance that defines today’s urban ecology, certain things and beings persist—aging in place. Objects, sites, and people that carry layers of memory and history reflect time back into the world, sometimes becoming more luminous because of it. Words that suggest age and decay, on KOO Jiyeon’s canvas, refer not to disappearance but to accumulation. The paintings in this exhibition explore how various subjects, translated into the language of painting, reflect and project time—and how they are perceived

through this process. For the artist, painting is a record of sensation, a means of preserving time. It is, in her words, “an act born from the desire to see again what has vanished—just as fossils return from the past into the present or future, I wish to materialize the present and send it forward to tomorrow, or further, so that it may be seen again.”

3. Artist's Note

Silver – Traces of Reflected Time

KOO Jiyeon

On my way to the studio, I pass a Baekje-era tomb unexpectedly nestled among rows of multi-family houses. It's a jarring sight, one that reminds me just how many layers make up this city. At first glance, the surrounding urban landscape appears familiar, even mundane—but beneath it lie thousands of years of accumulated time. Beneath the asphalt roads that we travel by following a GPS's instructions, there is another, invisible Seoul. Very little has endured the passage of time, yet when I come across traces of the past—accidentally revealed during new construction—I'm struck by how thin and fragile the layers are that allow the distant past and the present to coexist.

When someone asks me about the color of Seoul, I hesitate between “grey” and “silver.” Grey is opaque and flattening; it absorbs everything, overlaying the remnants of what once was with the new. From my studio window, I see Lotte Tower, clusters of brand-new apartment complexes, and kiosks inside unmanned convenience stores—massive yet hollow structures that erase the familiar with the unfamiliar. Grey is the color of that erasure. Silver, by contrast, reflects. It receives light from the past and sends it back out, momentarily reviving traces of time we never knew existed. It glimmers in the broken scales of light on the Han River, in fragments of pottery unearthed at construction sites, or beside stray cats abandoned after redevelopment. Silver is the light that drifts between the old and the new, between what has been erased and what remains. It is the reflection of accumulated memory, the fleeting appearance of the past, the afterimage of time that does not disappear.

As I paint, I often think that the overlapping brushstrokes resemble the temporality of the city. In the process of layering, erasing, and covering again, the surface of the painting ceases to be a simple image; it becomes a site where time has seeped in. The brush marks, which at first appear chaotic, gradually form a meaningful structure as they accumulate—only to disappear again. And at a certain point, I come to realize that none of this is accidental.

What I seek to depict is here, now. Painting it is not about recording a landscape; it is about preserving the trace of time that circles back to the present. It is an act born from the desire to see again what has vanished—just as fossils return from the past into the present or future, I wish to materialize the present and send it forward to tomorrow, or further, so that it may be seen again.

The things we think we've forgotten, the things we believe to be gone, still linger somewhere—like dust catching the light. Surrounded by grey, I search for silver. In the reflection of light, we confront the values that once existed—before the moment of silver disappears completely.

4. Artworks

| The high-resolution images can be downloaded via the Google Drive link provided on the first page.
| When using artwork images, please include the following copyright credit:
©KOO Jiyeon.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Photo: YANG Ian]

Representative Images



KOO Jiyeon
Vintage
2025
Oil on canvas
290.9 x 218.2 cm



KOO Jiyeon
Read Along the Crack
2024
Oil on canvas
227.3 x 181.8 cm



KOO Jiyeon
Patina
2025
Oil on canvas
162.2 x 130.3 cm



KOO Jiyeon
Faded Silver
2025
Oil on wood
30 x 21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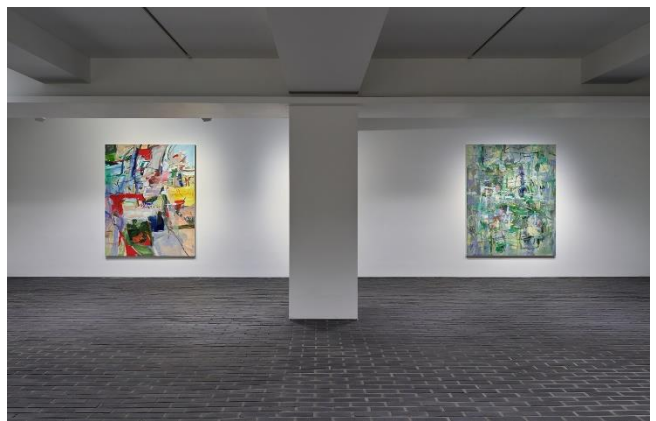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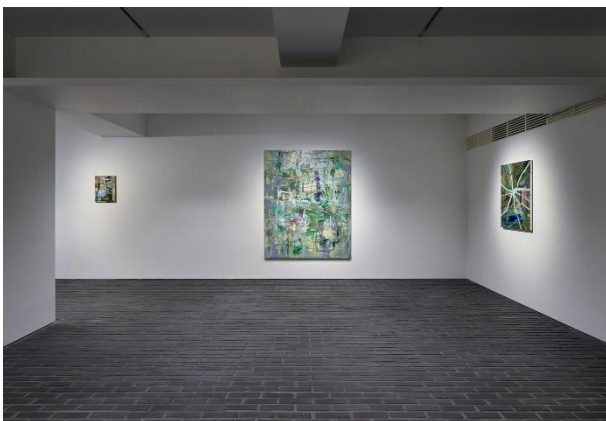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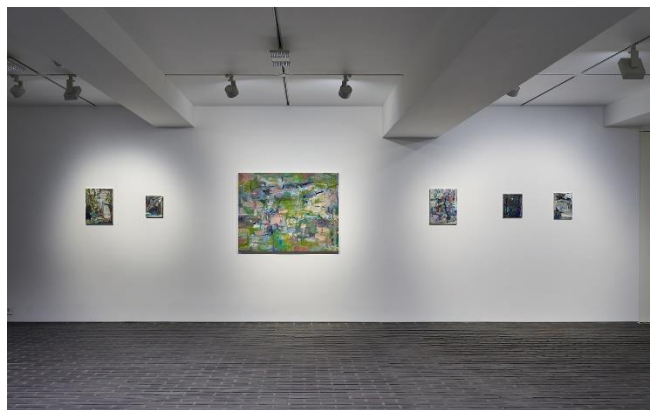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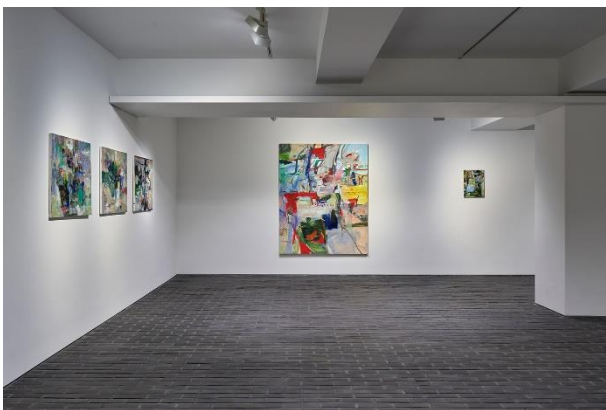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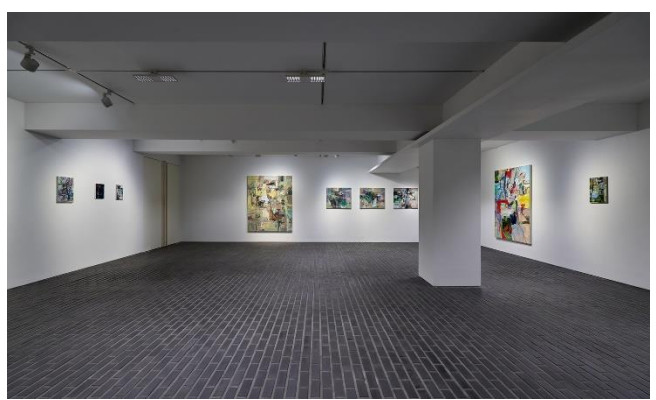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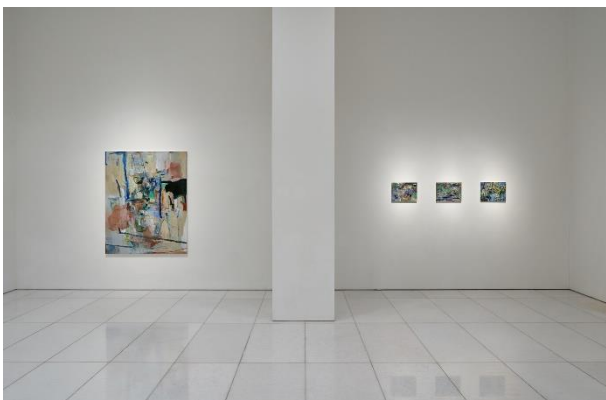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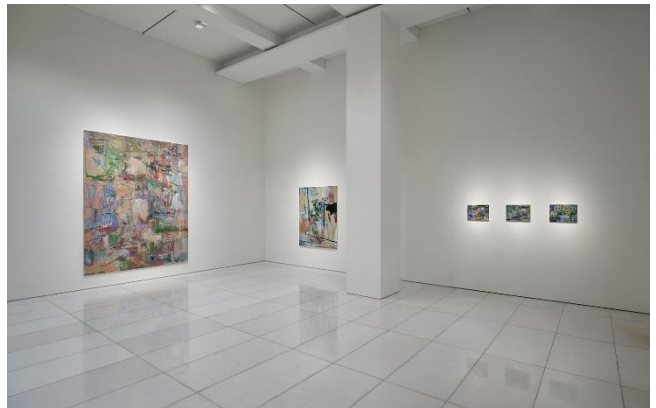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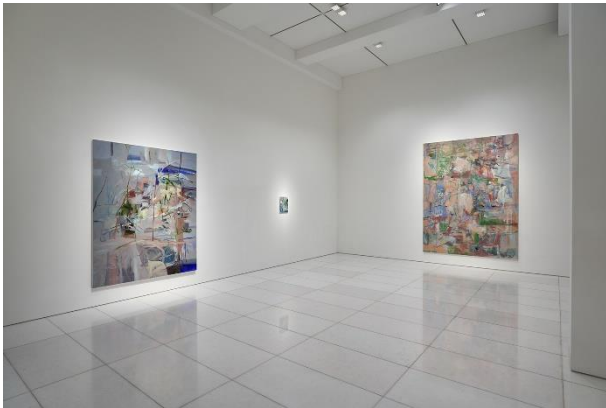
KOO Jiyeon
Spiderweb
2024
Oil on linen
40.9 x 31.8 cm



KOO Jiyeon
Fossil
2024
Oil on linen
40.9 x 31.8 cm

5. Installation View

*The high-resolution images can be downloaded via the Google Drive link provided on the first page.



Installation view of KOO Jiyeon: *Silver* at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2025.

6. Artist Introduction



KOO Jiyeon was born in Daegu, Korea, in 1982. She received her BFA in Fine Art from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in 2006 and from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in 2007, and earned her MFA in Studio Art from New York University in 2010. S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Fine Art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nd lives and works in Seoul. KOO Jiyeon has held solo exhibitions at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2025; 2021), Gallery Purple (Namyangju, Korea, 2022), ARARIO MUSEUM in SPACE (Seoul, Korea, 2018), Project Space Sarubia (Seoul, Korea, 2016) and more. She has participated in group exhibitions at Mimesis Art Museum (Paju, Korea, 2024), New Spring Project (Seoul, Korea, 2024),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2024; 2021), ARARIO GALLERY CHEONAN (Cheonan, Korea, 2021; 2020), Doosan Gallery Seoul (Seoul, Korea, 2019; 2014), Soda Museum, Hwaseong (Korea, 2019), Hite Collection (Seoul, Korea, 2018), Zaha Museum (Seoul, Korea, 2018; 2015), Doosan Gallery New York (New York, US, 2010) and more. Her works are collected by ARARIO MUSEUM, Bank of Korea.

7. Artist CV

KOO Jiyeon

Born in 1982, Daegu, Korea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Education

- | | |
|------|-------------------------------------------------------------------|
| 2006 | BFA Fine Ar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eoul, Korea |
| 2007 | BFA Fine Art,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Chicago, US |
| 2010 | MFA Studio Art, New York University, New York, US |

Solo Exhibitions

- | | |
|------|-----------------------------------------------------------------------------------------------------------------------------------------|
| 2025 | <i>Silver</i> ,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
| 2022 | <i>Layers</i> , Gallery Purple, Namyangju, Korea |
| 2021 | <i>Tongue & Nail</i> ,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
| 2019 | <i>Blue Vinyl Curtain</i> , 63 Art Gallery, Seoul, Korea |
| 2018 | <i>Purple Noise</i> , ARARIO MUSEUM in SPACE, Seoul, Korea |
| 2016 | <i>Heavy Jokes</i> , Project Space Sarubia, Seoul, Korea |
| 2011 | <i>The Ghost on the Back of the Painting</i> , Gallery 175, Seoul, Korea
<i>But Nothing Happening</i> , A.I.R. Gallery, New York, US |

Selected Group Exhibitions

- | | |
|------|---------------------------------------------------------------------------------------------------------------------------------------------------|
| 2024 | <i>Concrete Abstraction</i> , Mimesis Art Museum, Paju, Korea
<i>Abstract Gestures from Female Painters</i> , New Spring Project, Seoul, Korea |
|------|---------------------------------------------------------------------------------------------------------------------------------------------------|

- Landing Point*,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 2023 *Tentative Romanticism*, Nook Gallery, Seoul, Korea
- 2022 *The Fool on the Hill*, One and J. Gallery, Seoul, Korea
The 5th G.P.S. Art Navigator, Gallery Purple, Namyangju, Korea
- 2021 *The 13th Hesitation*, ARARIO GALLERY CHEONAN, Cheonan, Korea
- 2020 *Dancing Queen*, ARARIO GALLERY CHEONAN, Cheonan, Korea
- 2019 *Our Paradise*, Doosan Gallery Seoul, Seoul, Korea
Less is More, Soda Museum, Hwaseong, Korea
- 2018 *Allover*, Hite Collection, Seoul, Korea
Go Through-and Then, Zaha Museum, Seoul, Korea
Lobby Muddy Carpet, 2/W, Seoul, Korea
Jiyeon Koo, Eunu Lee: Illusion, AMC Lab, Seoul, Korea
- 2017 *The Exquisite Bond of the Hydrogen Corpse*, One and J. +1, Seoul, Korea
Ugly as Art,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Art, Seoul, Korea
- 2015 *Face-Scape*, Zaha Museum, Seoul, Korea
Face-Scape, Baek-Woon Gallery for Etro Art Prize, Seoul, Korea
- 2014 *Untitled*, Window Gallery, Gallery Hyundai, Seoul, Korea
Spectators, Doosan Gallery Seoul, Seoul, Korea
New Hero, Public Art Magazine, Space Nemo, Seoul, Korea
Today's Salon, Common Center, Seoul, Korea
- 2013 *Young Artists of Our Generation*, Bank of Korea Gallery, Seoul, Korea
- 2010 *One and Three Quarters of an Inch* (Curated by Peter Clough), St. Cecilia's Parish, New York, US
Force of Nature, Horticultural Society of New York, New York, US
Subtle Anxiety, Doosan Gallery New York, New York, US
Thesis Show, 80 Washington Square East Gallery, NYU, New York, US
- 2009 *For Real*, Common Gallery, NYU, New York, US
Gracias!, Common Gallery, NYU, New York, US

Awards

- 2014 The 3rd ETRO Art Prize, ETRO, Korea
- 2010 Winner, Santo Foundation's Individual Artist Award, The Santo Foundation, US
 A.I.R. Gallery Fellowship 03/2009-08/2011, New York, US

Collections

- ETRO, Korea
- Bank of Korea, Korea
- ARARIO MUSEUM, Korea